

애청자 여러분의 한 주일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셔서 감사 합니다. 말씀이 믿음에 화합하여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25회

25.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10.16.10. 25회)

2010년 10월 16일(안식일 아침)

[마21:42~4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序;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으로 살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불가불 영원한 불로 태움을 입어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여 아예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곧 구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만 거기서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그 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은 일단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마련될 때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사람이 여행을 할 때에는 목적지에 헤매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안내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갈래 길이 많으면 수시로 지도를 살펴서 바른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거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여행 준비를 얼마나 확실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까지 헤매지 않고 똑바로 잘 가기 위하여서는 똑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벧전2:11]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살이가 나그네의 길입니다.

[히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가 길을 잃으면 위험하지요. 바른길을 찾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바른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을 찾을까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지도와 안

내서를 통하여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경험자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안내서는 성경말씀입니다. 말씀에는 길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14:3~6]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실 것입니다. 혹시 아닌 분이 계시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셔서 꼭 예수를 믿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의 글들이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때로 영 길을 잘못 안내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비틀어도 엉뚱한 예수를 만듭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렇게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전서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말씀입니다.

[요1:1,1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살아 있는 초상화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성소에 떡 상에 떡을 차렸습니다. 12 덩어리를 6개씩 두 줄로 쌓았습니다. 이것은 암시적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소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은 누룩 없는 떡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떡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6개씩 두 줄로 쌓았다는 것은 암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말씀에서 바른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시지만 사이비 예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바른길에 서게 됩니다.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다고 책망합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본다면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증거하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지요.

[눅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문이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좁은 예수, 좁은 길도 좁은 예수, 넓은 문은 넓은 예수, 넓은 길도 넓은 예수 이렇게 대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믿기 쉽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과 좀 다른 것이 있어도 믿으면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넓은 문, 넓은 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길로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벌판일 뿐입니다. 문도 길도 없지요.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믿는다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40년대에 LA 지역에 유명한 폭력배로 미키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의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예증이라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폭력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가 신앙고백을 한 후에 왜 계속 폭력배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게 되어서 교인 친구들이 그에게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폭력배 노릇을 하고 있소? 그러자 미키 코헨은 오히려 의아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영화배우, 기독교인 운동선수,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으로서 기독교인 폭력배는 왜 안 됩니까? 만일 내가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내 이름을 교회에서 빼 주십시오.”(2008년 매일 양식 3월 11일)

교회에 다니는 것 침례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마21:42~4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자신이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과 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선행의 자랑스러운 것도 깨뜨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배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살전5:22) 그리스도인 배우는 배역을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폭력배 배역이나, 범죄자 배역이나 죄를 짓는 배역 등은 연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운동선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어기면서 운동선수 노릇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때 좋은 흥행을 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그리스도인 육상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올림픽 경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키는 성일에 예배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인 여류 기사는 자기가 지키는 성일에 바둑 대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활의 최우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배 노릇 하는 것이 미키 코헨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질만한 직업이 아닌 직업을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극심한 생활고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생활고에 시달릴 지언정 그리스도인 생활원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계14:4)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5편은 이런 사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15:1~5]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벅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4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24:3,4]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키 코헨과 같은 사상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좁은 길을 걸을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요. 엄격한 의미에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도 교인입니다. 쪽정에도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곡도 아니고 곡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요, 알곡이 되었는지요.

3.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잠28:9]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가증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퍼지도록 아무리 감동 있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불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결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일점일획이라도 사람의 마음대로 고치거나 무시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피고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예언의 지도를 바르게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경 예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된다는 성경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지요.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 예언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게 가게 됩니다. 예언을 모르면 어둠 속에서 방향을 모르고 더듬거립니다. 길에 들어섰다고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역사에 대한 예언과 그 역사적 시점에 있을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한 예언과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현대진리에 대한 예언을 상고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깝고 계시록 13장에 예언한 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서 올라온 어린양 같은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생길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외에는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과 짐승과 그 우상은 자기들이 용의 세력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미 언젠가 말씀 드린 대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말씀이 예언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는데 용의 세력에게 경배한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면밀히 살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성경이 예언한 사실에 대하여 잘 깨닫고 있습니까? 또 예언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 정세를 따라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붉은 용이 증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것이 증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산주의 대국인데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공이지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40년도 더 된 옛날 경험입니다. 이것은 세상 정세를 따라 성경을 풀이하는 한 예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정세를 살핀다고 해도 성경의 해석 원칙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5. 창조되었을 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태초에 창조된 그대로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존재로 변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화하여”라는 말씀이 헬리어로 “메타모르페”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네 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외모의 변화에 사용되었고 두 번은 내적 변화에 사용되었습니다.

[마17:2]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막9:2,3]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여기 “변형되사”가 “메타모르페”입니다. 예수께서 외모가 변형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둘 중 하나가 고후3:18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12:2입니다.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가 메타모르페입니다. 그러니까 고후3:18과 롬12:2은 내적 변화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와 마가의 말씀은 외모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빌3:21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외모가 변화되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엡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고 한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변화산에 보여주신 외모를 뜻하는 말은 아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내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요일4:8,16)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정이 넘치고 동정심이 많은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몸을 남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사랑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살신성인라고 하여 칭송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전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또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사랑이 모든 면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정신과 태도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얻게 하려는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요일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정신으로 행하지 않는 동정이나 희생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일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도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있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직 여자를 짓기 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독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은 바로 사랑을 실현하는 생명 현상인데, 혼자 있으면 이 형상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이라면 독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사이에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여 우주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창조하지 않을 수 없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이 사망이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자신이 대신 죽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사43:25]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성질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인 사랑을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반석에 떨어져서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사람이고, 불법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고,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중에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웃하고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꼭 만나도록 해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25번의 설교를 애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를 다 듣지 못하셨더라도, 한 번 만이라도 들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일단 저의 시간을 끝이 났습니다. 25개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면 25개의 cd를 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교는 처음부터 다 들으시면 복음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만드시 올바르게 깨달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실한 믿음으로 생활하시다가 머지않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중에 꼭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종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정성

껏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이른 새벽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즐겨 듣도록 애 청자들을 감동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진정으로 반석 되신 예수님께 떨어져 자아가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소망으로 생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27.(월) 8:41pm.